

예배를 배워 봅시다 - 친밀감

5) 친밀감

*모조된 친밀감을 직시하라

음식을 먹지 못하면 기아에 빠지듯, 친밀감의 욕구를 채우지 못하면 영혼도 기아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친밀한 소통을 증진하는 것은, 이 시대 커다란 숙제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해하는 친밀감이 너무 왜곡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조된 친밀감에 대해 영성 신학자 마르바 던은 “우리 문화에서는 친밀감을 빙자한 ‘직접성의 문화’를 추구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TV와 인터넷, 영화와 잡지는 대중에게 토크쇼의 친밀감, 사이버 공간의 친밀감, 피상적인 성적 친밀감을 끊임없이 주입합니다. 이런 미디어가 주는 친밀감은 직접적이며, 즉시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음악’입니다. 음악에는 친밀한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음악으로 얼마든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빠진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친밀감은 음악이 주는 느낌 그 이상입니다. 이 땅의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깊은 차원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배에서 추구해야 할 진정한 친밀감은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하는 친밀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현장이나 예배 현장에서 이와 같은 진정한 친밀감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상한 심령으로 예배하라

다윗은 ‘회개’의 시로 알려진 시편 51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시51:17) 상한 심령은 타락한 인간내면의 실체입니다. ‘상한 마음’이란 깨진 마음, 산산조각 난 영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깨진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상처를 주고 받으며, 비교하고 열등감과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공동체의 분열과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예배자에게 찾으시는 것이 “상한 마음”(시 51:17)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때마다 영광스러운 임재와 성령의 친밀하신 감화, 어루만짐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럴 때 내면의 깊은 상처와 관계의 갈등이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자신의 죄를 자각하며, 악한 본성에 대한 통회으로 또 한 번 마음이 깨진다. 죄 때문에 고장난 내면의 실체를 인정하는 마음,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 의로 주리고 목마른 마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탁월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고 찾고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친밀함이 예배의 핵심이다

친밀감은 모든 관계의 핵심입니다. 음식이 육체의 연료라면, 친밀함은 영혼의 연료와 같습니다. 친밀감으로 서로 영혼이 풍성해 집니다.

*하나님의 손 대신 얼굴을 구하라.

예배자의 생명이 화려한 계급장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직 예배 안에서 정경적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 즉 그 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초점은 자꾸 하나님의 손, 그분의 능력을 구하는데 머물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모세에게 그분의 뜻과 성품, 즉 ‘얼굴’을 알려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분이 행하신 일, 즉 ‘손’을 알려 주셨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에 들어오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과 세상을 바꾸는 일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골방에서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실패하면 전부를 잃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 회복,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

교회 소식

저희 교회를 처음으로 방문해 주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 주요 소식

1) 8월은 재충전의 달

8월 한달은 목회 안식일로 주일예배를 제외한 모든 집회와 양육 사역을 휴식하며 재충전의 기간으로 보내며 전반기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2) Good Neighbors 소리엘 “장혁재 목사” 찬양 예배

Good Neighbors 주관 소리엘 장혁재 목사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를 인도해 주신 장혁재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Good Neighbors를 후원에 대해 관심있으신 분들은 주보 삽지를 참조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예배 후에 현관에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감사

1) 예배당 배움 감사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교우동정

1) 입국 이석동/백은아 집사

■ 교역자 동정

1) 휴가 권태욱 담임목사 (8월 20일 - 8월 27일)

■ 8월 교회 주요 행사 안내

1) Good Neighbors 주관 소리엘 “장혁재 목사” 찬양 예배
8월 18일(주일) 오전 1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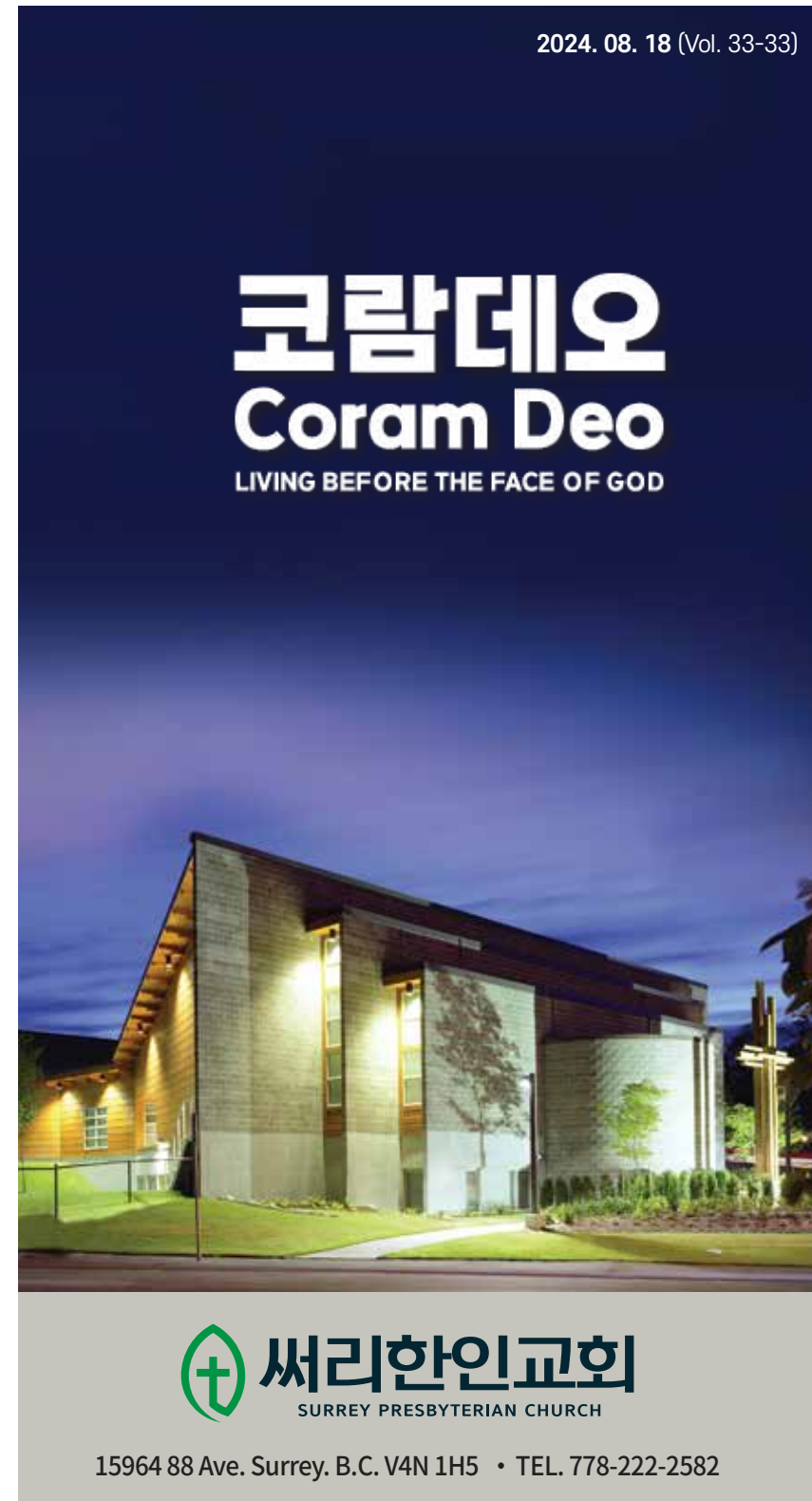


추천도서 SIX STEPS 여섯 걸음 (원유경 목사 저서)

“하나님을 위해 꿈꾸는 것은 무력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다!” 이 시대 다윗의 행렬을 선도하는 예배자 원유경 목사 (포드쳐치 담임)의 첫 책이다. 청년 부흥을 기대하기 힘든 이 세대에 ‘한게 없는 부흥’을 외치며 매주 피와 땀과 영혼까지 갈아 넣을 듯 예배하는 교회. 바로 창립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은 포드쳐치(POD, Parade of David, 삼하 6장)이다. 여섯 걸음마다 한 번씩 살진 소를 잡아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전심의 예배’를 넘어 ‘특심의 예배자’로 서길 원하는 원유경 목사는, 이 책을 통해 이 시대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어떻게 부흥하는가’가 아닌 ‘어떻게 사랑하고 예배할 것인가’를 치열하게 고민하며 길을 찾게 하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책이다. 저물어 가는 여명의 끝자락에 이 책을 통하여 매주 여섯 걸음마다 한 번씩 살진 소를 잡아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전심의 예배를 사모하게 되길 원합니다.

섬기는 사람들

- 원로목사 및 파송선교사 홍성득 (Sung D. Hong) 목사
- 담임 목사 권태욱 (Jonathan Kwon) 목사
- 부교역자 윤은수 목사 (중고등부/청년부), 하선미 전도사(유치부/유초등부) 이영미 전도사 (영아부/유아부)
- 시무 장로 김항덕, 우종근, 조석희, 박종덕 • 협동 장로 임선중
- 반 주 김민경



서리한인교회
SURREY PRESBYTERIAN CHURCH

15964 88 Ave. Surrey. B.C. V4N 1H5 • TEL. 778-222-2582

주일 예배

※는 일어섭니다.

- ※ **참회와 신앙고백** Call to Worship 다같이
- ※ **찬양** Hymn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다같이
- 대표기도** Prayer 우종근 장로
- 환영 및 광고** Announcement 인도자
- ※ **헌금봉헌** Offering 헌금위원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시편 Psalm 150:1-6 인도자
- 찬양과 말씀** Worship & Sharing 장혁재 목사(소리엘)
- ※ **결단찬양/기도** Prayer Together 인도자
- ※ **축도** Benediction 권태욱 목사

코람데오
Coram Deo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루!



오늘의 말씀 요약

- **본문:** 시편 Psalm 150:1-6
- **제목:** 찬양과 말씀 Worship & Sharing



씨리한인교회 합심기도

1. 매일 10명의 교우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축복 기도 합시다.
2. 기도의 300 용사를 세워 주옵소서.
3. 씨리교회 성도들 모두가 축복의 통로와 구원의 통로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지난 주 헌금

온라인 헌금 방법: 이메일 주소 offerings2spc@gmail.com
- 메모란에 이름, 헌금번호, 헌금분류 표시
- 비밀번호: SPC2020

예배 위원

주 일	8월 18일	8월 25일	9월 1일	9월 8일
대표기도	우종근	최미영	은세대 예 배	한선에
안내위원	임경자 고영미 한선에 최명원			임경자 고영미 한선에 최명원
헌금위원	고광임			
점심봉헌	김연수	김향덕	고영미	송성분

예배 안내

주일 예배	주일 예배 11:30 am 본관 1층 유.초등부 11:30 am 본관 지하 중고등부 & 청년부 11:30 am 본관 지하
새벽 기도회	화요일 - 금요일 6:00 am 본관 1층
금요 성령집회	금요일 7:30 pm - 9:00 pm 본관 1층
제3기 제자훈련반	화요일 9:30 am - 11:00 am 목양실